



변화의 동인:

퓨어스토리지 IT 지속가능성 영향 설문조사 2022

기후 위기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모든 업계의 조직들은 **지속가능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경영에서 탄소 발자국을 줄이기 위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데이터가 제공하는 인사이트와 그 중요성 또한 계속 커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IT 담당자들에게는 **조직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가 있습니다.

연구 결과

조직의 지속가능성에서 IT 부서가 어떤 중요성을 갖는지 알아보고, 책임 있는 변화의 동인으로서 IT가 직면하는 도전 과제를 파악하기 위해, 퓨어스토리지는 웨이크필드 리서치(Wakefield Research)와 협력하여 4개 글로벌 시장(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에서 지속가능성 관리자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연구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지속가능성 관리자(78%)는 **지속가능성 이니셔티브가 자사 경영진의 우선순위라고 응답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미국과 유럽의 모든 응답자에서 일관되게 나타났습니다. **대다수(56%)가 3년에서 7년 이내에 이러한 지속가능성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지만,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약 절반(51%)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설문조사에 참여한 기업 중 **32%가 탄소 중립 달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지속가능성 관리자들은 가까운 미래에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이는 지속가능한 IT 인프라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데이터센터는 현재 전 세계 전력 소비량의 1%를 차지합니다. 세계 경제 포럼(World Economic Forum)은 2020년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4%가 디지털화로 인해 생성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97제타바이트(97조 기가바이트)의 데이터가 생성되고 있으며, 2025년까지 이 수치는 두 배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종종 간과되는 사실은, IT는 지속가능성의 진원지이며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IT 팀은 지속가능성 관리자와 협력하여 데이터 스토리지를 혁신하고 낭비되는 에너지, 장비 및 기술을 줄일 수 있도록 적절한 IT 공급업체를 선택하여 조직의 데이터센터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습니다.



51%

목표를 향해 전진하고 있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약 절반에 불과합니다.

지속가능성에서 IT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현재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데이터가 생성되고 있고, 비즈니스는 점점 더 디지털화되며 데이터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양이 계속 증가하면 데이터센터의 에너지 소비 및 기타 천연 자원의 소비도 함께 증가합니다.

설문 조사에 따르면,

86% 

에 달하는 지속가능성 프로그램 관리자가 기술 인프라의 에너지 사용량을 크게 줄이지 않고서는 기업이 지속가능성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81% 

의 기업이 탄소 배출량에 미치는 기술 인프라의 영향이 향후 12개월 동안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조직의 지속가능성 전략에서 전력 소비량을 줄이고 냉각 및 낭비를 줄이는 현대적인 데이터 스토리지 플랫폼을 선택하면, 효율성을 높이고 브랜드 가치를 더하며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보다 지속가능한 데이터 스토리지 혁신에 필요한 연결 고리

지속가능성이 조직의 최우선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이 영역에 대한 투자를 할 때 IT의 환경적 비효율성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부서가 조직의 지속가능성 이니셔티브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34%가 IT 부서를 꼽았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인해 IT 담당자들은 탄소 배출량 저감을 우선 과제로 정했지만, 충분한 데이터 스토리지 용량을 제공하는 동시에 환경 영향을 실질적으로 최소화할 수 있는 적절한 솔루션을 선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59% 

는 공급업체 선정 과정에서 IT 인프라의 지속가능성이 간과되는 경우가 많다고 응답했습니다.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는 지속가능성 관리자는 비효율적인 기술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여야 합니다.

그러나 거의

3명 중 2명의

지속가능성 관리자(64%)들은 기술 구매 프로세스가 이미 시작된 후 조직의 IT 전략에 관여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지속가능한 기술 인프라를 지원하기 위한 모범 사례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의 핵심은 IT 부서를 포함해 조직의 모든 측면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IT 부서에는 데이터센터의 지속가능성을 새롭게 개척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지속가능성 이니셔티브는 IT 의사 결정권자의 공급망 관련 의사결정, 경영 등의 최전선에 있어야 합니다. 신중한 계획을 세우면 환경 효율성을 제한하는 일반적인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간단한 해결책은 지속가능성 관리자와 보다 긴밀하게 협력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100%

의 응답자는 IT 계획 프로세스의 초기에 지속가능성 관리자의 의견을 구함으로써 혜택을 얻을 수 있다는 데 동의합니다.



50%



는 IT 팀과 지속가능성 프로그램 팀 간의 더 많은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고 대답했습니다.

47%



는 이를 통해 보고가 더 쉬워질 것이라는 데 동의합니다.

46%



는 이를 통해 IT가 지속가능성 목표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46%



는 이를 통해 잠재적으로 유해한 기술 또는 관행의 사용을 막을 수 있다는 데 동의합니다.

이 보고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진행하는 IT 리더가 데이터 스토리지 전략을 개선하고 조직의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적절한 데이터 솔루션을 선택함으로써, 조직은 데이터센터의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데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고 전체적인 환경적 지속가능성 노력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창립 이래로 **퓨어스토리지는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제품과 서비스 구축에 투자해 왔습니다.** 퓨어스토리지는 데이터 워크로드가 증가함에 따라 데이터 인프라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것이 점점 중요해진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퓨어스토리가 제공하는 환경적 이점은 기술, 설계 철학, 그리고 고객에게 최고의 결과를 제공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는 가치가 어우러진 결과입니다. 퓨어스토리지의 핵심 기술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아키텍처를 통합하여 탁월한 집적도, 수명 및 효율성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설문 조사 방법

퓨어스토리지의 설문조사는 **웨이크필드 리서치(www.wakefieldresearch.com)**가 1,000여 명의 이사급 이상 지속가능성 프로그램 관리자를 대상으로 수행했습니다. 설문 조사는 4개 시장 미국(400), 영국(200), 프랑스(200), 독일(200)에서 실시되었으며, 2022년 10월 25일에서 11월 3일 사이에 이메일 초대장과 온라인 설문 조사를 활용했습니다.

